



비정규직 비율 사상 최고치 기록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총무성이 2월 20일 발표한 2011년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0.8%p 상승한 35.2%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 - 기업으로부터 고용된 전체 임금근로자(임원 제외) 수는 전년대비 23만 명이 증가한 4,918만 명이며, 이 중 정규직은 3,185만 명으로 25만 명 감소한 반면, 비정규직은 1,733만 명으로 48만 명 증가함.
 -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, 실업 지속기간 1년 이상 완전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5만 명 감소에 불과한 109만 명을 기록함.

-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33만 명 증가한 1,181만 명, 계약사원 및 촉탁 근로자가 27만 명 증가한 340만 명 수준임.
 - 특히, 55세 이상 남성 계약사원 및 촉탁근로자가 13만 명 증가하고, 35~54세 여성 시간제근로자가 1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으로 비정규직 중 여성(54.7%)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(19.9%)보다 높고, 55세 이상 근로자가 51.5%를 차지하며,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25~34세가 약 40%의 비중을 차지함.

- 완전실업률이 4.6%로 나타난 가운데, 완전실업자 수가 전년대비 33만 명이 감소한 284만 명으로 나타났음에도 다른 실업기간 구간에 비해 실업기간 1년 이상 완전실업자 수 감소(5만 명)는 소폭에 그침.
 - 학력별 실업률은 고졸이 5.3%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대졸 4.2%, 대졸 3.4% 순이며, 연령별로는 15~24세 9.8%, 25~34세 5.7%, 35~44세 4.1%, 45~54세 3.5%, 55세 이상 3.7% 순으로 학력과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게 나타남.

(일본 총무성, 아시히신문, 니혼게이자이신문 2/23 등 종합)